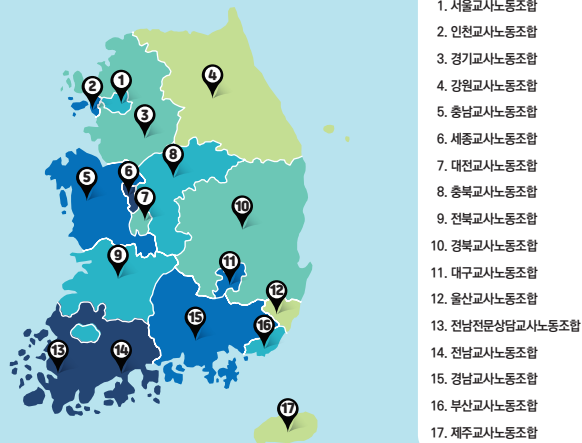


## 교사노동조합연맹 현황

교사노조연맹은 시도단위 교사노조와 급별·교과별 전국단위 교사노조의 분권형 노조 연합체입니다.

### 시도단위 가맹노조



### 전국단위 가맹노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 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 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 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 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 노동조합	민주시민교육원 노동조합	평생교사노동조합

## 교사노조연맹은

급별·영역별 전국단위노조·지역노조와 함께 교육부와 의 단체교섭 및 국회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를 포함한 지역단위노조는 독자적 예산과 교섭권을 가진 독립된 노조이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연합 혹은 연맹과 씨줄과 날줄로 함께 연대하며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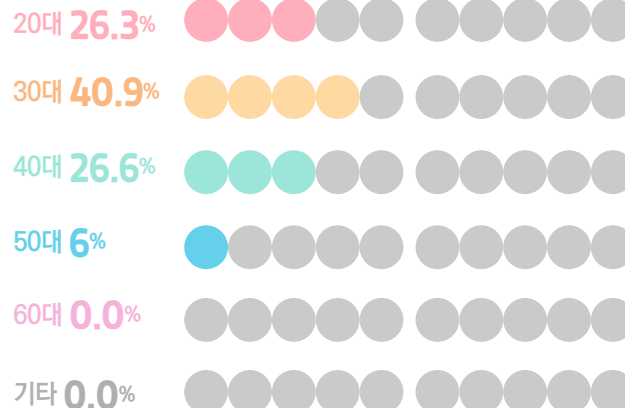
01

네트워크형 노동조합 : 활발한 온라인소통

02

젊은 조합원 : 조합원의 94%가 20~40대

### 연령대별 가입자 비율



## 충북교사노동조합 가입 방법

- 1 > QR코드 스캔
- 2 > 충북교사노조 클릭 / <https://cbtu.kftu.net>
- 3 > 메뉴 - 가맹노조 - 조합가입  
- 조합원가입 클릭 / <https://bit.ly/3JyH8FG>
- 4 > 기본사항 입력 후 확인
- 5 > 가입완료

가입주소



홈페이지



교사들의 좋은 벗, 다함께 행복한 교육  
충북교사노동조합

선생님들의  
친절한 벗

# 충북교사 노동조합

충북교사노조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좋은 벗, 다함께 행복한 교육  
충북교사노동조합

# 충북교사노조가 걸어온 길



- 2019. 9. 28 충북교사노조 창립
- 2020. 3 충북학부모연합회와 온라인개학 방안 간담회
- 2020. 12 충북교육청 단체협약체결(총 34조 137개항)
- 2021. 5 충북교사노조 사무실 개소식
- 2021.7 상급단체인 교사노조연맹 한국노총 가입
- 2021~2022 충북교육청 상·반기 정책협약체결
- 2021. 5 스승의 날 '충북지역 교사 교권 인식' 설문조사(3,494명 참여) 충북교육청 전달
- 2020~2022 가정의 달 결식아동돕기 성금 모금 전달
- 2021. 11 충북학부모연합회와 무상급식 합의 환영 논평
- 2021. 12 충북도·도의회 무상급식 서명 전달(6,264명)
- 2022. 4 교육감 예비후보에 정책 공개질의
- 2022. 12 공무직 총파업 학교교육 파행 대책 마련 촉구
- 2022. 12 충북교육청, 돌봄업무 교사 배제 촉구 성명
- 2022. 12 학생생활지도 법령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2023. 1 충북교사노조 임원 - 충북교육감 정책간담회



충북교사노조 창립(2019.9.28)



2020 단체협약(2020.12.14)



교사노조 사무실 개소식(2021.5.15)



교육감직 인수위 정책협의회(202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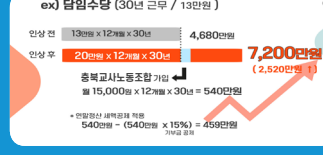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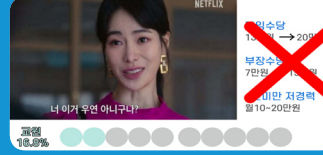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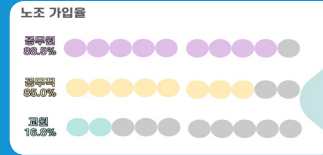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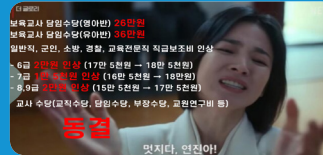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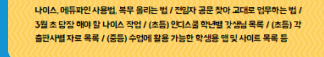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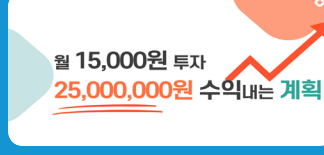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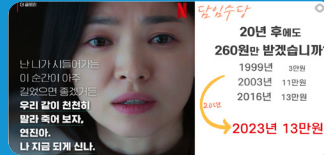


결식아동돕기 성금전달(2020.3.12)



충북교육감 간담회(2023.1.26)

# 혼자하면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하면 강해지고 변화됩니다.



# 충북교사노조 가입 후기



교직 6년차, 교사노조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관리자와 교육청 및 교육부의 부당업무지시, 학교 내 타 직종과의 갈등까지 이 모든 것에 교사는 이렇게 힘이 없고 부당하다 느껴도 공무원 이니까, 저경력이니까 감내해야만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교사 혼자만의 목소리는 힘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노조와 "함께" 의견을 제안하고 우리 교사 "집단"의 목소리를 키워가니 조금씩 학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느끼게 되었어요.

신규 때 겪었던 수많은 스트레스를 우리 후배선생님들께서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선배교사로서 도움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어요.

함께해요, 우리♡

(조합원 이00님)

십수년의 교직경력이지만 노조에 가입한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초임교사 때는 노조의 필요성도 알지 못했고 막연히 "노조"라는 것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교직생활 중 일련의 부당한 처사를 경험하고 이런 부당한 상황을 쉬쉬하며 개인이 감수하기보다 교사단체에 가입하여 개인이 아닌 단체의 입장에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에 가입하고보니 저와 같은 일을 겪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교사분들이 많았습니다. 흔히 교사들을 점조직이라고 하지요.

이제는 개인이 모든 일을 감수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사노조에 가입하여 선생님들의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 또한 그렇게 노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의견 개인이 아닌 통합과 융통성이 공존하는 노조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동참하세요.

(교사노조 Special님)

안녕하세요.^^ 조합원 김00입니다. 뉴스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올때마다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교사노조 가입 후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졌어요.

교사노조 화이팅!

